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절대적인 강의 숫자의 감소

데이터로 본 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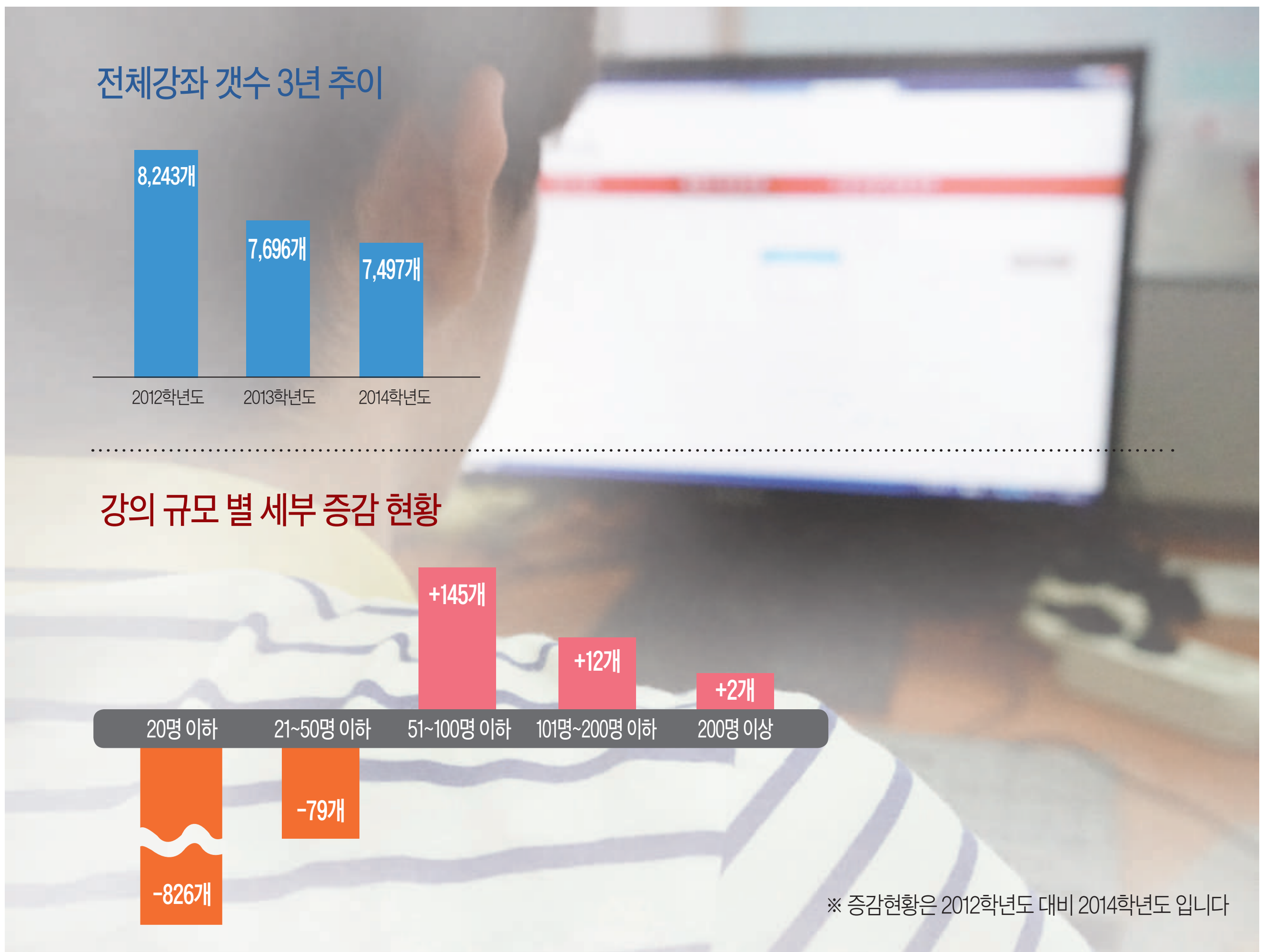
#. 대학주보는 2016년 1학기에 '데이터로 본 경희' 연재를 시작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CAR(Computer Asisted Reporting: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학주보는 이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시각화해 깊이있는 기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최근 3년간 전체 강좌갯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수강신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조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

1. 양 캠퍼스 주변지역 치안범죄 현황
2. 강의갯수 변화 추이와 교원숫자로 살펴본 수강신청
3. 프라임 사업 학과별 정원 이동 및 신설학과 현황
4. 양 캠퍼스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
5. 양 캠퍼스 도서관 관련 데이터 현황

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의가 총 746개 감소해, 수강신청 대란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학교는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학년별 신청과 전 학년 신청 등으로 2번의 신청기회를 부여하지만 이 기간 안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을 위해 각 학과 행정실은 북새통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학교정보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는 정정기간에 특정 강의를 사거나 판다는 글이 수강신청을 전후해 끝없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정정기간은 수강하지 않을 강의를 취소하고, 원하는 강의의 잔여좌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신청하는 조정기간이지만 수강신청 가능한 자리가 생기지 않자 강의를 매매하는 폐단까지 나타나고 있다.〈대학주보 제1594호 (2015.08.31)〉

군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김권혁(경영학 2012) 군은 "예전에는 수강신청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의 부족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듣고 싶은 강의는 고사하고 비인기 강의까지 잔여 인원이 없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강의 개수는 적은데 학생이 강의실을 꽉 채울 만큼 포화상태라서 수업의 질도 좋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수강신청 대란 심해지면서 강좌 사고파는 폐단까지 횡행

강의부족은 김 군의 기분 탓이 아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총 강의 수는 2012년 8,243개에서 다음해 7,696개, 이어 2014년에는 7,497개까지 3년간 746개가 실제로 감소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형 강의는 대폭 감소하고 대형 강의는 소폭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20명 이하 소형강의의 개수는 826개, 21~50명 규모의 중소형강의는 79개가 감소하는 동안 51~100명 규모의 중형강의는 145개, 101~200명 규모의 대형강의는 12개, 201명 이상의 초대형강의는 2개 증가했다.

소형 강의가 감소하고 대형 강의가 증가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실상은 다르다.

위의 현황을 토대로, 각 강의별 최대인원을 상정하여 계산해봤다. 우선 감소한 수용인원의 총합은 20×826(20명 이하 소형강의 826개 감소)=16,520명에 50×79(21~50명 규모의 중소형강의 79개 감소)=3,950명을 합해 총 20,470명이다.

한편, 증가한 수용인원의 총합을 알아보면, 100×145(51~100명 규모의 중형강의 145개 증가)=14,500명에 200×12(101~200명 규모의 대형강의 12개 증가)=2,400명을 합친 16,900명에, 201명 이상의 초대형강의 2개 증가분이 합쳐져 대략 총 17,300~17,400명가량이다.

결과적으로, 감소분 20,470명과 증가분 17,400명의 차이인 대략 3,000여 명이 넘는 강의 수용인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강의 수 감소는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엄청난 규모다. 우리학교 외 서울권 사립대 7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강의 수가 감소한 대학은 서강대와 한양대뿐이었다. 이들 대학은 각각 452개, 242개가 감소했다.

두 대학은 재학생 규모가 서강대 약 8,000명, 한양대 약 15,000명인만큼 재학생이 25,000명인 우리학교보다 강의 감소의 체감피해가 적은 상황이다.

이밖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같은 기간 오히려 전체 강의 수가 증가했다. 재학생 규모가 우리학교 다음으로 많은 고려대는 약 2만 명 규모로 우리학교보다 5천여 명 적었지만, 2014년 기준 전체 강의가 7,674개로 동년 7,497개를 기록한 우리학교보다 많았다. 게다가 고대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370개, 그 다음해 957개의 강의가 다시 증가하여 3년간 총 1,327개가 증가했고, 특히 증가한 강의 중 소형강의가 900여 개로 나타났다. 소형강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우리학교 현황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의 수 증설 하지만 강의와 함께 교원수도 감소

결국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의 수 증설이다.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늘리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강의와 함께 교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740명이었던 학부 전임교원은 2013년 720명, 그 다음해 689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학부 비전임교원은 2012년 889명에서 다음해 소폭 증가한 891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82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때문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합친 전체 교원 수를 보면 지난 2012년에 1,629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518명으로 약 100명 이상 줄었다.

2015학년도 전체 개설강의 수는 정보공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학주보 측에서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15학년도 개설강의 수를 직접 세어본 결과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사지원과 측은 "강의 개설은 각 단과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매학기 변경된다"며 "음대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1대1 방식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팀티칭 형식으로 묶어서 진행한다. 수업 개설 방법을 바꾼 경우 개설강좌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학생들의 수강신청 대란은 매학기 끊이지 않고 있다.